05□□□_01□□□ 12. 7. 19. □□ 7:39 Page 123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3호 2012.06. pp.123~147

최승자 시의 재생의식과 상실의 체험
Regeneration of Choi Seung-Ja's poems and experience of loss

이재헌(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자아 존재와 싸이키에너지
3. 부정적 인식과 카타르시스
4. 상실의 체험과 시간의 폭과 깊이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최승자(1952~)의 시세계는 여성적 시 쓰기의 한계를 극복한 본능적 자기방어의 세계관으로 억압적 현실에 대해 비애를 증폭시키며 밀폐된 시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본고는 처절한 자기고투의 체현과정을 통해 시속에 함축되어 있는 재생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최승자는 비극적 체험을 통한 실존적 주체로서 세계에 대한 부정과 자아 부정을 존재의미로 수용하고 있다. 그는 실존적 자아 존재와 세계의 본질을 재발견하고 절망적 체험들을 감정의 피상성을 벗어나 전복성의 자아의식을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의 상실의 체험을 통한 부정적 인식은 점차 자아에 대한 깨달음과 타인에 대한 연민, 재생지향적인 시세계를 보여준다. 그의 내면에 깔려있는 억압된 무의식이 개성화를 통해 자아와 자아를 둘러싼

05□□□_01□□□ 12. 7. 19. □□ 7:39 Page 124

세계와의 갈등을 의식화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의 시가 꾸준히 읽히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기존의 부조리한 지배질서를 거부하고 자기부정과 자기 폭로적으로 삶의 의미를 끈질기게 찾고자하는 욕망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존재의미를 회복하기위해 타자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시적 채색의 파문일 것이다. "존재하려는 갈망이 글쓰기에서 한 존재를 솟아오르게 하고"[1] 세계와의 불화를 극복해주고 화해시켜줄 그의 시 쓰기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절실한 욕망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그의 무의식적 소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 쓰기는 현존재로서의 자아가 억압적 고통 없이는 재생의식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로 내면적 정신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질로서의 여성성이란 남근 중심적 동일성 담론으로는 이해도 표현도 불가능하며 페미니즘 관점에서 "그것은 시인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인의 세계관과 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이기도"[2] 하다. 대상에 대한 상실의 체험은 주체로서의 '나'를 향한 성찰로서 치유에 대한 사랑의 현존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재생의식은 세계와 소통하려는 내면성을 추구하고 있다. 최승자는 세계와의 갈등에서 상실로 인한 소통 과정을 변혁의 주체로서 면밀히 관찰해 자기존재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시도한다. 하지만 사랑의 부재와 타자와의 결핍으로 응집된 억압적 욕망은 타자화된 자신의 존재감과 현실감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그의 억압적 욕망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시대와의 갈등과 충돌은 자기 함몰의 위협과 공포로 드러난다. 불변성 속에 내재하는 사랑의 본질과 함께 현존성을 상기시키는 재생의식은 세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세계를 끌어안으며 재생시켜나가려는 욕망을 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프로이드는 1930년 문명 속의 불만(das Unbehagen in der

1) 가스통 바슐라르, 안보옥 옮김, 『불의 시학의 단편들』, 문학동네, 2004, 127쪽.
2) 문혜원, 『한국 현대시와 전통』, 태학사, 2003, 216쪽.

05□□□_01□□□ 12. 7. 19. □□ 7:39 Page 125

Kultur)에서 그동안 정신분석 연구를 통해 밝혀낸 인간 및 사회 본성에 대한 개관을 한다. 여기에는 인간과 인간사회의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인간성과 잔인성, 그리고 처참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는 자아와 타자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과정을 삶의 내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자아와 죽음의 허구적 이분법을 해체하는 시적 방법을 채택한다.

자아와 죽음의 풍경을 겹쳐놓은 진술을 통해 언어가 구축할 수 있는 욕망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그의 시에서 서늘한 공명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죽음'은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일 것이다. 죽음은 세계와의 관계와 단절시키고 자아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근원적 변곡점이 되기 때문이다. 죽음은 지각 가능한 세계와의 관계 형식을 원천적으로 파괴시키는 물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최승자는 시 쓰기를 통해 죽음의 의미에 대해 역설적인 시적 전회를 보여준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 이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열망하는 양가적 욕망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그의 시에서 죽음은 소멸해가는 삶의 일부이자 세계와 등가로써 끊임없는 죽음충동이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는 변질된 세계와 자아가 뒤섞여 공존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시적 의미를 증언하고 있다. 그의 시 쓰기는 단순히 영감과 발상만으로 우연히 건져 올린 노획물이 아니라 현실을 견디면서 세계의 이면을 투시한 결과물이다. 그는 죽음에 대한 욕망을 통해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고 비극적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재생하려는 역설적 절망과 좌절이 시의 지평을 이루고 있다. 그는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욕망이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진정으로 시퍼런 진실의 시를 쓰려면 고통이나 상실도 하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체념에서 위안을 얻어야"[3] 한다는 것이다.

3) 이승원, 『시 속으로』, 서정시학, 2011, 316쪽.

05□□□_01□□□ 12. 7. 19. □□ 7:39 Page 126

최승자는 비극적 현실부정을 통해 여성성의 자유를 열망하는 인간회복의 존엄성을 획득하고 있다. 시를 통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폭력의 주체인 가부장적 자본주의 모순에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그 경험적 객관성조차 소멸되는 가운데 '여기 있음'의 순수 관념을 현재화하는 능력으로서의 언어의 노래이다."[4] 그의 시에서 타자는 그 자체로서 비극적 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피폐해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되비추어줌으로써 타자에 대한 부정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2. 자아 존재와 싸이키에너지

최승자의 시 쓰기는 대립과 저항의 시대를 살아내야만 하는 철저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모순적 현실에 대한 비극적 욕망은 그의 시에서 수많은 역설적 진술로 표출되고 있다. 암울한 세계에 대한 시적 진술은 기억의 수용과 거부 사이에서 명징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기억은 자아 정체성과 의식적 통찰, 그리고 영혼의 주의력 있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기반이다. 행동의 중심이고 '나'의 근원인 마음은 기억에 기반을 둔다."[5] 회상은 과거와 의미관련을 가지는 사적인 기억작용으로 자기 동일성으로 그리워하는 과거 지향적인 자아가 될 수밖에 없다. 자아와 경험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인식과의 내적 갈등은 타자와의 체험을 채용하고 있다. 융[6]의 말로 하자면 우리는 모두 완전히 인간적이라

4) 알랭 바디우, 장태순 옮김, 『비미학』, 이학사, 2010, 46쪽.
5) 장석주, 「헐벗은 아이, 트라우마, 구멍의 기억들」, 『작가세계』, 2007년 봄호, 89~90쪽.
6)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 7월, 스위스 케스빌에서 태어나, 스위스 전통이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융의 끊임없는 탐구정신은 그를 플라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으로 끌고 갔고, 그것은 그가 의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김성민, 『분석심리학과 기독교』, 학지사, 2001, 13쪽.

05□□□_01□□□ 12. 7. 19. □□ 7:39 Page 127

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무리의 내적 청사진인 그러한 특질을 향하는 본능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한 청사진, 즉 원형은 역동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 원형은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싸이키에너지인데, 그 사이키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동기와 이상을, 그리고 개성의 특정한 측면을 키우는 것이다. 그 원형은 무의식 안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극을 받아 의식 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혐오하고 경멸하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구조란 심층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다양한 가치를 보여 줄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최승자는 죽음이 지닌 카타르시스의 일면을 강조하며 집요한 삶의 본능으로 사유한 상실의 체험[7]들을 역설적 진술을 통해 긍정적 의미로 재생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죽고 싶음의 절정에서
죽지 못한다. 혹은
죽지 않는다.
드라마가 되지 않고
비극이 되지 않고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견뎌내야 할 비극이다.
시시하고 미미하고 지지하고 데데한 비극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 물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

7) 체험을 통하여 지속적인 동일 자아의 개념이 최초로 탄생한다. 이 지속적 감각의 자아에 우리는 '진정한' 자아란 이름을 붙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체험들에 통일성과 구조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체험들을 단순히 시간적 연속에 따라 연결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또는 가치로 통일시킨다는 것이며, 이때 의미부여의 주체로서의 능동적 자아는 그 체험들에 일관하는, 하나의 동일한 자아의 의의를 띠는 것이다. 김준오, 『詩論』, 삼지원, 2009, 410쪽.

05□□□_01□□□ 12. 7. 19. □□ 7:39 Page 128

맞은편에서 병신 같은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극」 전문

인용시 「비극」에서 시적 화자는 "죽고 싶음의 절정에서" 결국 "죽지 못한다", "죽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존재의 이중성을 드러낸 장면이다. 이토록 죽음에 집착했지만, 죽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기도 하다. 시적 화자의 비극은 서러움보다는 "죽음"에 대한 강렬성을 지닌 것이다. 슬프고 아프지만 남의 일 같이 지나가고 말 "드라마가 되지 않고" 있다. 시적 화자가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극적 욕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비극적 세계인식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부딪치려는 과격한 비극을 선택한다. 시적 화자는 "죽지 못 하"는 것을 "견뎌내야 할 비극이다."고 했지만 이것조차도 "시시하고 미미하고 지지하고 데데한 비극이다."라고 한다.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적 화자의 현실에 대한 파괴적 부정이다. 시적 화자에게 있어 단절과 소외의 공간은 건너야 할 "물"이요. "내가 견뎌야할 비극"이다.

최승자의 시는 이러한 비극적 인식으로 현실 파괴적 언술이 주조를 이루며 '죽음'과 뗄 수 없는 암울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의 의식 속에 극도로 억압하는 욕망은 시인이 보여주는 존재의 비극성으로 "죽고 싶은 절정에 서있다"고 토로한다. 그토록 "죽음"을 갈구하지만 상처와 절망과 파괴는 "비극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적 화자가 끊임없이 죽음을 희구하지만 생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살고 싶은 충동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죽고 싶음"과 "죽지 않는 것"은 버림받은 것에 대한 불안과 소외에 대한 처절한 고통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치닫지만 시적 화자와 타자와의 이원적 대립양상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불안과 공포의 악순환으로 "죽음"에 이르는 "비극"의 절정을 이루고야 만다.

05□□□_01□□□ 12. 7. 19. □□ 7:39 Page 129

말하지 않아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나무들 사이에 풀이 있듯
숲 사이에 오솔길이 있듯

중요한 것은 삶이었다
죽음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거꾸로도 참이었다는 것이다.

원론과 원론 사이에서
야구방망이질 핑퐁질은 해대면서
중요한 것은 죽음도 삶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삶 뒤에 또 삶이 있다는 것이었다
죽음 뒤에 또 죽음이 있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전문

인용시 「중요한 것은」 최승자의 여섯 번째 시집 『쓸쓸해서 머나먼』에 수록된 시편으로 시인의 삶은 죽음의 언저리를 맴도는 지극히 고통스런 시간을 달려왔다. 시집 『연인들』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시편들은 자신의 상처 안에 웅크리고 있던 시인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도 불사했던 고통의 동굴에서 빠져 나오려고 한다. 철저히 균형감각을 잃은 타락한 세계 속에서의 주어진 시간들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어두웠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버림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은 놀라운 변화의 징후를 보여주지만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간은 만만치 않다.

자유의 시간을 움켜쥐고 견뎌 내야할 삶은 자신을 찾는 새로운 탐험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신작의 주제어는 '시간'이다. "삶"도 "죽음"도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시적 화자는 내면에 묻어두었던 기억들 속에서 "중요

05□□□_01□□□ 12. 7. 19. □□ 7:39 Page 130

한 것"을 끄집어낸다. 그것은 자신을 억압했던 "죽음이 아니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삶이었다" 시에서 세계는 심하게 부패했고, 부정했으며 그런 세계를 향해 시적 화자는 격렬한 어조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시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아의 무력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삶" 속에 감춰진 "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원론"에 충실하며 그러한 "원론과 원론 사이에서"나타나는 "방망이질"과 "핑퐁질"은 서로를 쳐대고 떠넘기고 하는 자기 방어적이면서도 동시에 공격적인 성격을 갖는다. 시적 화자는 다시 "중요한 것"에 대한 분명한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도 삶도" 아니라는 것이다. "삶 뒤에 또 삶"과 "죽음 뒤에 또 죽음"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삶 뒤에"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진정한 삶을 놓치고 산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시적 화자의 '고통'이라는 극한 체험은 고립된 자아를 형성했고 그것이 고통 안의 삶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고통 뒤엔 재생이 있기 마련이다. "죽음 뒤에 또 죽음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 의미는 한 번의 "죽음"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삶의 교훈적 진정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3. 부정적 인식과 카타르시스

최승자에게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기극복의 필연적 계기가 되지만 시인에게 꿈과 현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사랑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좌절은 환멸과 부정적 인식을 이끌어낸다. 최승자 시에 나타나는 타자는 선험적으로 부정한 대상으로 현실부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타자에 대한 대립적 관계가 비판적 성찰과 존재인식의 여지조차 허용하지 않는 부정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05□□□_01□□□ 12. 7. 19. □□ 7:39 Page 131

반면 타인에 대한 부정과 저항은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촉발하는 의식의 배경이 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타자화해서 바라볼 때 타자는 자아가 대상이 되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승자는 타자화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을 뿐 아니라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 도전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승자 시에서 억압적 현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두려움을 스스로 떨쳐버리고 있는 시적 화자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대상에게 자신의 부정의식을 투사하는 반항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극심한 부정은 그 내부로부터 희망의 전조를 드러내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는 새로운 변혁의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의 일치는 부정의 부정 속에 직접적으로 놓여있는 긍정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 즉 부정의 부정은 긍정적인 존재이다."[8]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철저히 절망한 시인은 위악적인 세계 현실을 반복적으로 부정하는 무서운 욕망을 나타낸다. 최승자에게 타자란 죽음의 세력으로 자아 존재와 자유를 제한하는 부정적 실체이고 자아를 짓밟고 억압하는 폭력적인 존재이다.

최승자는 타자를 철저히 부정적 존재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타자에 대한 부정은 무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타자화된 자아에 대한 부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의 부정한 모습이 자아의 욕망에 반사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서 본질적 자아는 상실되고 타자에 의해 구성되어진 타자화된 자아만이 남게 된다. 억압을 통해 현실적 자아만이 존재하는 분열된 욕망이 존재하게 되는데 시에서 끈덕지게 나타나는 근원적인 죽음 충동은 억압적 욕망에 대한 깊은 인식과 연관된다고 파악한다. 앞서 밝혔듯이 자아와 세계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극복의 필

8) 미하엘 토이니센 지음, 나종석 옮김, 『존재와 가상』, 용의 숲, 2008, 307쪽.

05□□□_01□□□ 12. 7. 19. □□ 7:39 Page 132

연적 계기가 되는 것으로 최승자의 시에서 부정적 인식은 자아 존재와 인식의 괴리를 통합할 수 없을 정도로 전면적이고 심층적이다.

말 못할 사랑은 떠나가고
말 못 할 입도 떠나가고
크게 더 크게 울부짖을 수 있을 개들만이 남았었지.
너 잘났니 뽕? 너 잘났다 뽕!
한 시대 전체가 전자 게임 화면처럼
죽이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
혼신으로 으르렁거리던 흑색 개 백색 개들의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중얼거리며
아파트 입구를 내려서다 보니,
우리 시대의 꿈들은 모두가 개꿈이라고,
철 지난 암호처럼 미래의 프로파간다처럼
허섭쓰레기로 웃고 있는 장미,
장미 송이들의 개개체.

그래 아 드디어 이 시대, 이 세계,
희망은 죽어 욕설만이 남고
절망도 죽어 치정만이 남은……
아아 너 잘났다 뽕!

—「말 못 할 사랑은 떠나가고」 전문

시집 『내 무덤, 푸르고』의 인용시 「말 못 할 사랑은 떠나가고」에서 시적 화자는 부정한 세계에 대해 "말 못 할 사랑"을 시도했음을 전제한다. 그러한 세계는 공포와 억압의 대상으로 남성적 폭력성을 드러내주고 있

05□□□_01□□□ 12. 7. 19. □□ 7:39 Page 133

다. "말 못 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부정한 세계는 "떠나가고" 시적 화자는 그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크게 더 크게 울부짖을 수 있을 개들만이 남았었지" 공포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죽음과 절망과 고통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릴 방법은 "울부짖"는 것 밖에 없다. 음울하게 도사리고 있는 상실된 사랑의 전형을 보여준다.

"너 잘 났니 뿅? 너 잘랐다 뿅!"에서 부정한 세계에 대한 야유적인 저항이 나타난다. "너"는 상실된 대상이며 무력한 시적 화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한 시대의 전체가 전자 게임 화면처럼"은 사랑의 대상으로 획득될 가능성이 없는 부정한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길 밖에 없어"는 적극적으로 죽음을 지향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타자와의 단절된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자기 부정을 통한 세계 비판이다. "혼신으로 으르렁거리던 흑색 개 백색 개들의 시절." 시대적 불안과 세계의 부조리를 인지하고 절망적인 사랑에 절규하는 시적 화자의 심상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중얼거리며/아파트 입구를 내려서다 보니, 우리 시대의 꿈들은 모두가 개꿈이라고"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꿈조차도 죽음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이다.

부정한 세계에 대해 철저한 자기 인식으로 출발한 시적 화자는 타락한 사랑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철 지난 암호처럼 미래의 프로파간다처럼/허섭쓰레기로 웃고 있는 장미"처럼 자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동시에 억압적 현실에 대한 재발견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타락한 세계에 대한 사랑은 시적 화자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그래 아 드디어 이 시대, 이 세계"에서 시적 화자가 세계에 집착하는 것은 "희망은 죽어 욕설만이 남"아도 죽음 속으로 들어가 세계를 바라보며 긍정적 가치에 도달하려는 강력한 재생의식의 발현이다. 그러나 "절망도 죽어 치정만이 남은……/아아 너 잘났다 뿅!"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저항과 응전의 자의식을 표명하고 있다.

05□□□_01□□□ 12. 7. 19. □□ 7:39 Page 134

지금 네 눈빛이 닿으면 유리창은 숨을 쉰다.
지금 네가 그린 파란 물고기는 하늘 물속에서 뛰놀고
풀밭에선 네 작은 종아리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이상하지,
살아 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네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 짓고……
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眼)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 눈물의 외줄기 길을 타고 떠나가리라.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는 네 스스로 江을 이뤄 흘러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의 몫은 이제 깊이깊이 가라앉는 일. 봐라,
저 많은 세월의 개떼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잖니,
흰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들고
푸른 파도를 타고 달려오잖니,
물려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끝내 물려 죽으면서,
나는 깊이깊이 추락해야 해.
발바닥부터 서서히 꺼져 들어가며, 참으로
연극적으로 죽어가는 게 실은 나의 사랑인 까닭에,

05□□□_01□□□ 12. 7. 19. □□ 7:39 Page 135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오,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
잠시 울고 서 있을 네 모습을,
이윽고 네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동냥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화 한 닢도
기쁘게 던져 주며
마침내 네가 이르게 될 모든 끝의

시작을!

—「20년 후에, 芝에게」 전문

인용시 「20년 후에, 芝에게」에서 시적 화자의 주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의 추구는 시적 화자의 본질적 초상에 대한 발견과 성찰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 네 눈빛이 닿으면 유리창은 숨을 쉰다/지금 네가 그린 파란 물고기는 하늘 물 속에서 뛰놀고/풀밭에선 네 작은 종아리가 바람에 날아다니고,"체험적인 의식의 주관적인 시간관의 확립은 점점 더 본질적인 자아에 대한 명징한 발견과 구현으로 구체화된다. 시적 화자는 스스로에게 "이상하지,/살아 있다는 건" 모든 관계는 끝을 전제로 시작되고 진행된다.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시적정황으로 미루어 시적 화자를 일깨워 주는 모든 제도와 억압을 양산했던 세계를 직시하고 침윤되

05□□□_01□□□ 12. 7. 19. □□ 7:39 Page 136

지 않은 존재를 감지하고 있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네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지난 시대를 투영해 보면서 시적 화자는 사랑의 대상인 세계의 존재를 열린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짓고……/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眼)을 달고/세상으로 출근하리라." 이렇듯 세계를 껴안으려는 모성의식은 최승자 시의 주조를 이루는 재생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많은 사람들이 네 눈물의 외줄기 길을 타고 떠나가리라/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너는 네 스스로 江을 이뤄 흘러가야만 한다." 이처럼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자기 응시이다. 최승자는 시에서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몫은 이제 깊이깊이 가라앉는 일 봐라/저 많은 세월의 개떼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잖니/흰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들고/푸른 파도를 타고 달려오잖니"에서 "세월의 개떼들"은 세계가 시적 화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폭력에 대한 상징이면서 "물려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끝내 물려 죽으면서/나는 깊이깊이 추락해야 해"는 세계에 폭력에 당한 시적 화자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파괴 지향적 진술이다.

"발바닥부터 서서히 꺼져들어가며 참으로/연극적으로 죽어가는 게 실은 나의 사랑인 까닭에"는 적극적인 자기파괴 이후의 세계를 극복하고 타인에게 거절된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오/거리에 비 내리듯/내 무덤에 술 내리고/나는 알지" 생의 연장선에 있는 부정적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시적 화자가 "무덤"이라는 죽음의 이미지를 빌려오고 있다. 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둠"을 방법적으로 차용한 공간이다.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잠시 울고 서 있을 네 모습을/이윽고 네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에서 시적 화자가 세계를 보는 눈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삶을 내걸었던 세계에 대한 실존적 굴욕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주고

05□□□_01□□□ 12. 7. 19. □□ 7:39 Page 137

있다.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그들의 동냥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화 한 닢도/기쁘게 던져 주며/마침내 네가 이르게 될 모든 끝의"는 허위로 가득 찬 세계에 대해 시적 화자는 의식 내부의 주체할 수 없는 죽음과 욕망 사이에서 복잡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화해하기 어려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애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4. 상실의 체험과 시간의 폭과 깊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서 생의 좌표와 의미를 가늠하고 수정한다. 시간이 거쳐 가고 남은 자리에 부러져있는 소모와 쇠약, 또 한편에서 벌어지는 생성의 현장은 인간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는 냉엄한 지표이다. 최승자 시는 궁극적으로 시간과 투쟁하는 존재의식을 형상화한다. "의식은 반드시 시간성(temporality)과 매개"[9]한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시간과의 대결양상은 정서적 직접성과 대상의 중층성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시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며 현존재성의 망각을 엄중히 강요한다.

모든 사물의 변화와 소멸을 이끄는 시간의 파괴성은 현존재를 망각의 저편으로 몰아가는 일을 역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억압을 초월하려는 의식을 지닌 시인들의 표정은 그 현실의 물리적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시간의식을 갖고 그 억압을 벗어나려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의 표정들은 세계에 대한 자아의 해체와 통합의 심리적 세계관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에서 80년대 문화적 상황 속에서의 해체적 문화의 대응은 이러한 자유 추구의 욕망의 표정으로 나타났으며"[10]

9) 박주택, 「시간의 영혼 혹은 잠의 노래」, 『현대시학』, 2004년 7월호, 278쪽.
10) 김수복, 『상징의 숲』, 청동거울, 1999, 181쪽.

05□□□_01□□□ 12. 7. 19. □□ 7:39 Page 138

최승자 시에서는 뒤틀린 억압의 시대와 해체된 주체를 통과한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시대와 개인, 역사와 인간이 삼투하며 길항하는 생생한 내면의 이동현장이다.

길이 없어 그냥
박꽃처럼 웃고 있을 뿐,

답신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오지 않을 답신위에
흰 눈이 내려 덮히는 것을
응시하고 있는 나를 응시할 뿐.

모든 일이 참을 만해요.
세포가 늙어 가나봐요.
가난하지만
이 房은 다정하군요.
흐르는 이 물길의 정다움,
물의 장례식이 떠나가고 있어요.

잊으시지요.
꿈꾸기 가장 편리한 나는
무덤 속의 나니까요.

—「길이 없어」 전문

인용시 「길이 없어」에서 "길이 없어 그냥"이란 표현에서 시적 화자가 현실에 대해 단절을 야기시키고 있다. 있어야 할 "길"이 없어 난망해 하는 표현으로 "박꽃처럼 웃고 "있을 수밖에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

05□□□_01□□□ 12. 7. 19. □□ 7:39 Page 139

도 없다는 듯이 보이지만, "길"은 곧 시적 화자 자신으로 상실의 표현이므로 시간의 침묵적 대응을 전제하고 있다. "답신을 기다리지 않아요"는 눈 빠지도록 답신을 기다리다 지쳤다는 것이요. 자신을 찾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답신"이 도착하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길"은 응당 시적 화자가 갈망하고 있는 세계이다. "길"은 시간과 병행한다. "길"을 간다는 것과 "흐르는"것은 시간이 지나감을 전제한다.

간절히 염원한 "길"을 상실한 후 그 "길"은 "답신"없는 "길"이 되어 황망한 마음을 "웃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흰 눈이 내려 덮히는 것을/응시하고 있는 나를 응시할 뿐" 시적 화자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한다. 그럼에도 "모든 일이 참을 만해요"고 한 것은 고독과 소외를 끝까지 능동적으로 일깨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대상을 "응시"하고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이 시작되듯이 "응시"하고 있는 시간 속으로 타자와의 관계로 일어난 내면의 갈등을 타자와의 새로운 관계의 통로인 "죽음"으로서 다시 생성하는 "흐르는 이 물길" 제 몸을 놓는 것이다.

"죽음마저 생성의 자양으로 삼으려는 삶의 초월의지는 목숨이 주어지는 한 인간의 "길"에 대한 성찰을 멈출 수 없게 한다."[11] "흐르는" 것은 "물"과 시간이다. 시간이 흐르면 "세포가 늙어" 가는 것이다. "물"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길"을 간다. 시간도 제 "길"을 갈 뿐 시적 화자는 "잊으시지요."라고 하면서 시각적인 집중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 "房"과 "무덤" 같은 시간이동이 정지된 현실은 시간성이 상호 침투하고 중첩되면서 한자리에서 동일화 되고 있다. "무덤"을 은폐된 죽음으로 해석할 때 죽음은 은폐의 형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시적

11) 김명인, 『시어의 풍경』,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249쪽.

05□□□_01□□□ 12. 7. 19. □□ 7:39 Page 140

화자의 절망은 반복적인 부정적 자기 증식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길"에 닿으려는 역설적 추동력을 확보한다. 시적 화자는 상실체험의 확장을 통해 부정적 "무덤"을 벗어나 세계와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다스려야 할 상처가 딱히 또 있어서
내가 이 곳에 온 것은 아니다.
세계가 일평생이 상처였고
그 상처 안에 둥우리를 튼
나의 현재 또한 늘 상처였다.

가장 깨끗한 욕망 혹은
가장 더러운 절망을 짊어지고
나는 이 산으로 올라왔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소비가
지겨워 나는 떠났다.
나는 소비를 위한 생산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다스려야 할 상처가」 전문

인용시 「다스려야 할 상처가」의 중심축은 "상처"다. "상처"는 별로 의식되지 않지만 언제나 쫓아다니는 그림자처럼 삶의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시적 화자에게 이 불길한 "상처"의 존재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간다. "다스려야 할 "상처"가 딱히 또 있어서"익숙하던 "상처"가 갑자기 낯설어지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다." 비상의 욕망을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하강의 충동을 실천하게 하는 불길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세계가 일평생이 상처였고" 현실 저 너머에서 삶을 견인하

05□□□_01□□□ 12. 7. 19. □□ 7:39 Page 141

는 죽음의 무거운 그림자를 체감하게 한다. “그 상처 안에 둥우리를 튼”은 “상처”를 부르는 욕망의 질주 끝에 내밀한 미지의 세계를 지향하는 시적 화자는 “나의 현재 또한 늘 상처였다.”고 실토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삶의 근원적인 존재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있는 “가장 깨끗한 욕망 혹은/가장 더러운 절망을 짊어지고/나는 이 산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시적 화자의 “상처”로 대체할 고토의 현장으로 어둡고 파행적으로 내장된 에너지를 감지하게 한다.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소비가/지겨워 나는 떠났다” 시적 화자는 삶과 “상처”, 현재와 미래, 순간과 영원을 현재화 하고 있다. “나는 소비를 위한 생산을 할/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에서 시적 화자의 뚜렷한 욕망은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깨달음의 산물이다. 시적 화자에게 “상처”는 자기 완성의 방법이라는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존재론적 열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실에서 비롯된 공포와 치욕에 대응하는 최승자의 궁극적 지향점은 외면할 수 없는 비극적 세계와의 합일이다. 그가 세계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저항의 태도와 저항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실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실된 욕망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쓰기에서 세계에 대한 부정과 혐오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다.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부정과 역설을 통해 삶의 비극성이 증폭되고 있는 그의 가학적이고 공격적 폭력성의 알 수 없는 의식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억압적 현실에 대한 이중적 체험으로써 죽음이 공포인 동시에 탐닉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시인은 이러한 이중주 속에서 죽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 놓은 삶의 심층

05□□□_01□□□ 12. 7. 19. □□ 7:39 Page 142

적 욕망을 탐사하고 동시에 시적 화자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세계에 대한 단순히 부정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머무르지 않고, 내밀한 욕망을 표출하거나 구성하는 역리의 과정을 통해 재생의식이 구현되고 있다.

최승자의 시에서 질식 당하리만큼 비극적 상황을 직시한 공포와 기대, 가학과 자학이 서로 공존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응혈처럼 얽힌 죽음본능이 상실의 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시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의 시는 한마디로 적극적인 정신의 기능에 기대면서 억압된 욕망을 통해 세계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역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 전반에 호흡을 멈칫하게 하는 무서운 공포, 소외, 분노, 증오가 폭약처럼 농축되어 있는 것은 세계에 대해 전면적인 부정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과의 대립적 관계 때문이다. 최승자의 현실인식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지배질서는 강력한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하면서 부정한 자기 증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고, 억압적 현실은 부정적 인식이 생성되게 된 원인으로 진실이 부재한 세계이며 부정이 유예되는 허구라는 것을 냉정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의 체험을 통해 세계로부터 받는 고통과 절망이 강할수록 재생의식은 더욱 자극받고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끊임없이 자아를 붕괴시켜 왔던 고통을 치열하게 노래함으로써 현실의 절망을 뛰어넘으려는 그의 현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죽음의 실재성이야말로 회피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응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편재적 원리임을 알게 된다. 반면 타자를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내면에 침잠해 있는 욕망은 부정한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최승자의 시 쓰기는 부정적 현실 자체가 아니라 발화 주체의 위치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본질적 의미를 통찰하는 것이며 깊은 상처

05□□□_01□□□ 12. 7. 19. □□ 7:39 Page 143

속에서 신음하는 욕망의 과제를 풀어서 실존적 자기를 찾는 것이다. 그는 세계와 단절된 자아 존재를 발견하며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하고 재생의식의 이행을 꿈꾸고 있다. 최승자는 자유로운 시적 상상력을 통해 시가 뿜어내는 역동성의 기운이 자아 성찰을 위한 과정으로 현실의 억압구조를 뚫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아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대상과의 절망적 경계를 해체하고 응축된 욕망을 재생의식 안으로 끌어들여 확장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5□□□_01□□□ 12. 7. 19. □□ 7:39 Page 144

참고문헌

시집

최승자, 『이時代의 사랑』,문학과지성사, 1981.

_____, 『즐거운 일기』, 문학과지성사, 1984.

_____, 『기억의 집』, 문학과지성사, 1989.

_____, 『내 무덤, 푸르고』,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연인들』, 문학동네, 1999.

_____, 『쓸쓸해서 머나먼』, 문학과지성사, 2010.

기본자료

김명인, 『시어의 풍경』,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김수복, 『상징의 숲』, 청동거울, 1999.

김준오, 『詩論』, 삼지원, 2009.

문혜원, 『한국 현대시와 전통』,태학사, 2003.

박덕규, 「시와 상징」, 유종호 · 최동호 편저, 『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작가, 2005.

박덕규, 『문학공간과 글로컬리즘』, 서정시학, 2011.

박주택, 「살아 달이고 우려낸 즙의 시학」, 『현대시학』, 1999년 5월호.

박주택, 『반성과 성찰』, 하늘연못, 2004.

이숭원, 『시 속으로』, 서정시학, 2011.

장석주, 「헐벗은 아이, 트라우마, 구멍의 기억들」, 『작가세계』, 2007년 봄호.

가스통 바슐라르, 안보옥 옮김, 『불의 시학의 단편들』, 문학동네, 2004.

Nancy McWiliams 저, 정남운 · 이기련 공저, 『정신분석적 진단』, 학지사, 2008.

로버트 A. 존슨 지음, 박종일 옮김, 『내면의 황금』, 인간사랑, 2010.

미하엘 토이니센 지음, 나종석 옮김, 『존재와 가상』, 용의 숲, 2008.

숀호모지음, 김서영 옮김,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9.

S. Freud, 임홍빈 · 홍혜경 역,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 열린책들, 1996.

알랭 바디우 지음, 장태순 옮김, 『비미학』, 이학사, 2010.

페터 비트머 지음, 홍준기 · 이승미 옮김, 『욕망의 전복』, 한울, 2009.

05□□□_01□□□ 12. 7. 19. □□ 7:39 Page 145

프로이트 저, 박찬부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프로이트 저, 김석희 옮김,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05□□□_01□□□ 12. 7. 19. □□ 7:39 Page 146

Abstract

Regeneration of Choi Seung-Ja's poems and experience of loss

Lee, Jae Heon

Choi Sueng-Ja's poems in general contain a fear, an alienation, a rage and hatred. A relationship of confrontation which should stand the overall denial toward the world is why her poems contain these feelings. A system of patriarchy in Capitalism manages crisis well and propagate itself continuously. In her poems, Capitalism is the world without the truth and full of injustice. The Capitalist world lacking sincerity arouses the negative understanding toward the world and this irrational surroundings stimulate her existence strongly. More intense the pain and despair caused by the unfair world, stronger the consciousness of existence is. This is a fatal tragedy to become a negative existence and Choi discloses her desire of destruction.

A fierce self-examination against the world is essential to correspond to the surroundings since Choi already recognizes that feeling of an alienation and a solitude is severe. Various responses demonstrate bright light against the tragic situation which became a crippled world. A fierce self-examination makes these responses possible. Choi has spent quite a long time to realize the unity with the object only by throwing away tenacity and greed. A dream of unity

05□□□_01□□□ 12. 7. 19. □□ 7:39 Page 147

with the world is possible only when she throws away the tenacity and attachment to the world.

Choi's act of writing a poem means the process of finding herself. She becomes an independent being to fix her identity and to discern the essence of the life. Moreover, she wants to reconcile with the world and this will extend the existential meaning of human and take the world into the consciousness.

주제어 : 재생(regener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상처(wound), 파괴욕망(desire to destruction), 연민(a pity), 회상(reminiscence), 극복(recovery), 시간(time), 길(a way)

논문 접수일 2012. 05. 04.
논문 심사일 2012. 05. 25.
게재 확정일 2012. 06. 08.